



조류인플루엔자, 전 세계의 문제이자 우리의 문제이다

겨울철 철새의 이동철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고 나면 들려오는 여러 나라의 발병 소식에 우리나라의 언론도 앞다투어 그 위험성을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 중점을 두어 보도하는 것은 닭에 대한 위험성이 아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중요시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의 인플루엔자로 변이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별써 소비자들은 국내 발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를 줄이고 있다. 전년 이맘때 즈음에도 국내외적으로 발병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양계 산업은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 이때는 다행히 조기에 근절이 되고 소비촉진 홍보 덕분에 빠르게 산업은 회복되었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들의 반응은 불행히도 그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 사태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농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아니 전 세계적인 문제로 커져 버렸다.

이처럼 심각해진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에 대해서 우리 양계농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지어도 국내에서 발병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인식은 빠르게 다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만히 있다고 소비자의 인식이 바뀔 리가 없다. 소비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또, 소비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현 상황에서 양계농장에서 해야 할 최대한의 대책을 위주로 정리를 해보았다.



1. 조류인플루엔자 정말 사람에게 치명적 인가 ?

작금의 소비 위축문제는 질병이 국내에 발병하여 닭이 죽어서가 아니라 WHO(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감염시 과거 1918년에 스페인에서 엄청난 유행을 하여 약 5천만명을 사망케 한 스페인 독감과 같은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사망자수는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보다도 많은 것으로 질병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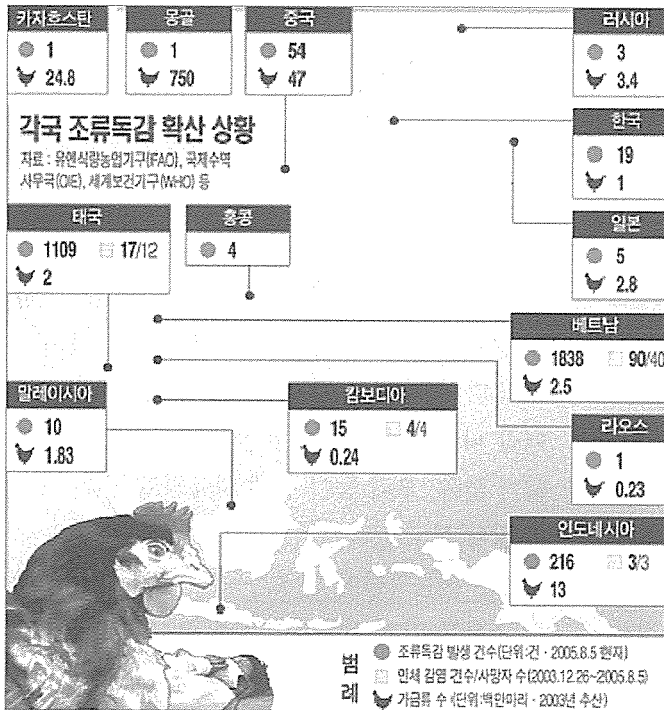
준다. 즉, 현재 아시아에서 유행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의 유전자형이 과거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유전자형과 비교하여 보니 2,300개의 유전자 염기 서열중 10개만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고 이종육 WHO 사무총장이 동남 아시아 국가를 차례로 순방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전 세계의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문제로 심각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국내외의 언론이 터키, 루마니아 등에서 발병한 사례를 보도하고, 인체 감염시의 피해 가능성에 대하여 추측된 최악의 경우만을 보

도하면서 국내 닭소비는 급감하기 시작했다. 물론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체에 감염되어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동남아 국가에서는 현재까지 소수이지만 피해자가 나타났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우려하는 수백만명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사망할 수 있다는 가정은 우리나라보다는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과 같은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의료 전문가의 견해이다.

먼저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발생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와 같은 엄청난 피해는 발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1918년에는 의료 수준이 지금과 비할 수 없이 낮았고, 1차 세계대전 직후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영양 수준이 매우 낮고, 병에



〈그림 1〉 2005년 8월 기준으로 실제 인체 감염이 발생한 나라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정도이며 다른 나라는 보고가 없다. 국내에서도 2003년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했었지만 인체 감염은 없었고 현재는 조류에서조차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지 않고 있다.



대한 예방 위생 관념이 낮아서 가벼운 감기로도 폐렴으로 진행되어 죽을 정도였다. 또 그 당시 젊은이들이 주로 사망했었다는 것은 당시 평균 수명이 현재보다 훨씬 적었고, 전쟁 직후라 많은 군인들이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쉽게 감염되어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건대 우리나라 수준의 국가에서는 현재 설령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사람에게 독감이 발생하여도 큰 피해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마도 큰 피해가 발생한다면 후진국에서 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현재도 독감에 걸린다고 죽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좀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플루엔자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타미플루와 같은 약품도 이미 각국 정부에서 구매하여 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충분치는 않겠지만 이러한 약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설령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발병할 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이고 큰 피해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에서는 최악의 경우(후진국의 경우라 생각됨)만을 주로 일반적인 사실인 양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양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우선 우리나라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령 발생할지라도 인체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만에 하나 인체 감염이 일어날지라

도 사람이 죽거나 큰 전염병으로 번져 많은 피해가 발생할 확률은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작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서 폐사된 닭을 계사내에서 꺼내야 할 때 사람들이 감염될까 두려워 인부 구하기가 힘들었던 것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 누구도 감염되지 않았으며, 피해도 없었다. 양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잘못된 정보와 사실 때문에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차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2. 국내와 외국은 다르다?

이제 현실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자.

조류인플루엔자가 근절되지 않는 동남아 국가와 중국을 보면 아직도 많은 시골지역의 농가에서 닭과 오리, 거위 등이 함께 사육되고 있는 곳이 많다. 태국처럼 대규모로 농장 시스템이 갖추어진 나라에서도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닭과 물닭, 오리 등이 함께 사육되고 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다.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듯이 이처럼 여러 종의 조류를 함께 사육시에는 질병의 예방과 차단이 매우 어렵다. 특정 질병은 어떤 종에서는 증상 없이 지나가지만 다른 종에서는 치명적일 정도로 높은 폐사율을 보인다. 대표적인 질병이 뉴캐슬병과 조류인플루엔자이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닭은 폐사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치



명적이지만 오리나 거위 등은 눈으로 보이는 피해가 매우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오리 등이 바이러스를 증폭시켜 감염을 확장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실제 중국 동부지역에서 한 대학 연구팀이 오리와 거위의 고기를 판매하는 시장에서 2002~2004년에 샘플을 채취하여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이러한 것을 입증한다. 총 8개의 strain이 검출된 이 조사 결과에서 H5N1이 36.7%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 H6와 H3형이 13%와 11.9%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이 검출되었다. H5형의 검출시기를 보면 1월에서 3월까지 기간동안에 21.7%로 가장 높은 검출률을 보였으며 5~10월 사이는 가장 낮은 0.25%의 검출률을 보였다.

이 결과를 보면 오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중요 숙주이며 감염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조사에서 닭은 감염시 폐사되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으므로 제외되었다. 겨울철에는 특히 인플루엔자의 중국내 발병이 극심한 것을 이 조사 결과는 또한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이와 같이 소규모로 닭과 오리를 함께 사육하는 농가가 적어서 혼합 사육에 따르는 위험성은 낮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리 농장과 닭 농장의 거리가 가까워서 쉽게 감염될 소지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양계 농장은 양계 농장대로, 오리 농장은 오리 농장대로 좀더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되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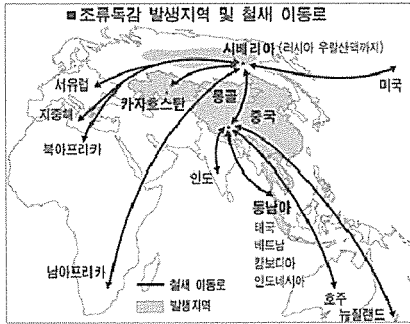
또 다른 점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도 우리나라는 동남아 국가보다는 월등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조기 진단 키트를 전국에 배포했으며 전년의 경험을 살려 조기 정보체계가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는 잘 수립되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정부의 대책이 잘 수립되어 있어도 농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계 농장은 방역에 철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철새가 무섭다

그 동안 '철새' 하면 그냥 무심코 '아, 겨울철이면 우리나라에 왔다가 봄이면 다시 돌아가는 새들'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이 녀석들이 질병을 옮길 것이라고는 책에서만 읽었지 전혀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 수의사들이나 컨설팅하는 분들이 늘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농장에 고양이, 개 키우지 말고, 참새나 기타 새들이 계사안에 들어와 닭들과 사이 좋게 사료를 나누어 먹지 말게 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처럼 철새가 큰 질병 전파의 원인으로 떠오르리라고는 별로 생각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 처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했을 당시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발병 원인에 대해서 많은 학술과 가설을 세웠다.



〈그림 2〉 철새는 전 세계로 이동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전염의 주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철새가 주된 원인으로 여겨지는 것도 정말 드물지 않나 싶다.

긴말 할 것 없이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이 철새는 질병 전파의 중요한 매개체 또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철새를 잡아 바이러스를 분리하느라 난리가 났다. 우리나라 정부도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분변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철새로부터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질병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오리의 경우에는 혈청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에 발병한 지역이나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지역 21곳을 집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하늘을 날아오는 철새를 무슨 수로 막겠는가? 양계 농장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설령 철새가 바이러스를 묻혀 날아오더라도 내 농장에는 절대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 방역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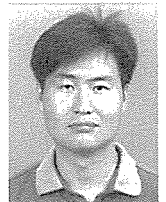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

감염될 것을 당연하고 여기고 그 대책을 수립하려고 난리가 났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위험성을 보도하고 소비는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 발생하지 않게 한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공이 될 것이다. 예전에는 단지 우리 양계 산업의 문제처럼 생각되었던 일이 전 국가적인 방역의 성공과 사람의 질병 유입 가능성을 차단한 엄청난 공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지 않는다면 국내산 닭고기와 계란 소비는 다시 금 회복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든지 국내 질병유입을 막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겨울철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창궐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동남아가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 중국에서 날아오는 철새를 어떻게 막고, 이 철새가 전염시킬 수 없도록 최선의 방책을 세워 시행해야 할 것이다. 양계 농장의 일이 이제 전 국민의 건강을 확실하게 책임지게 된 것이다.

올 겨울 우리나라는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이 없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C



윤 현 중 양계 PM
바이엘코리아(주)